



박삼구 한중우호협회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울 롯데호텔에서 덩둥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덩둥 부회장, 박삼구 회장,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금호아시아그룹 제공>

한중 우호증진, 교류 활성화 의견 교환

박삼구 회장-덩둥 中 우호연락회 부회장 면담

한중우호협회 회장을 맡은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이 덩둥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과 만나 한중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5일 금호아시아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덩둥 부회장과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추귀홍 주한 중국 대사,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덩둥 부회장은 아버지인 덩사오핑 전 중국국가주석이 1992년 초 상하이, 선전 등 남방 경제특구를 순시하면서 개혁과 개방 확대를 주장한 '남순강화' 시기에 모든 사할 일정을 수행하며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국내에서는 2001년 자신의 저서 '별들의 지도자 등소평'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활동 중인 중국국제우호연락회는 국제적 민간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1984년 설립된 단체다.

박삼구 회장과 덩둥 부회장은 한중 수교 이전인 1990년대 초부터 친분을 쌓으며 한중간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논의해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광산소방서, 가스공사 등과 협약



광주광산소방서(서장 양종근)는 5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 (주)KT&G 서광주지사, (주)해양도시가스 등 4개 기관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광산소방서 제공>

광주여대, 학생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



광주여대(총장 이선재)는 최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항공서비스학과·서비스경영학과·미용학과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 KWU 학생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주여대 제공>

“백세시대, 제2의 인생 설계로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한귀례 인생이모작 지원팀장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모봉양과 자녀양육 ‘임무’를 떠난 베이비부머들은 미처 노후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슬슬한 은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인생이모작 지원팀’이 신설됐다.

한귀례 인생이모작 지원팀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가 예고돼 있다”며 “인생이모작이 중요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까지 태어난 세대(1955년~1963년)를 말한다. 약 714만여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한 팀장은 “광주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광주 전체인구는 147만2199명으로, 은퇴준비가 필요한 세대(45~65세)는 41만5905명(28.3%)에 달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퇴직 평균연령도 56세로 짧아졌어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난 3월 은퇴자 위해 신설

재취업·창업지원 서비스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기회도 제공

노련한 인력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는 얘깁니다.”

인생이모작 지원팀은 행복한 인생 후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 사회공헌을 원하는 시민에게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년들의 다양한 사회·경제활동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많은 사람이 노후준비를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접근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관계죠.”

그는 “퇴직자들이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급선무”라며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가 필요한데 그 대안이 바로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퇴직자들이 무료한 삶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다. 또 은퇴자들의 노후준비는 경제적인 여건을 비롯한 신체·심리·여가·관계까지 그 격차가 개인마다 크다. 직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대다수 중년들은 직장이 큰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인간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불안감마저 느낀다고 한다.

한 팀장은 “특히 남성이 불안감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가족을 위해 오로지 일에 매달렸기 때문에 ‘아빠’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똑같이 일하는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유대관계를 이어오는 것과 다르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그래서 지원팀은 은퇴를 앞둔 40대 남성들이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동아리활동 공간도 제공해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인생 이모작 지원팀이 슬로걸을 ‘제2의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자’로 정한 이유다.

한귀례 팀장은 “은퇴 후 인생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현장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사장배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 골프대회

50여명이 참석, 화합을 다졌다. 대회 이후에는 광주시 서구 매월동 한 식당에서 시상식과 원우의 밤 행사를 열었다.

광주일보 사장배 제4기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 골프대회가 5일 화순CC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최갑렬 4기 원우회장 등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방랑시인 김삿갓’ 작곡

전오승씨 별세

원로 작곡가 전오승 씨가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별세했다. 향년 93세.



1923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난 전 씨는 1939년 진남포 실업학교를 졸업한 뒤 월남해 서울에 정착했다. 작곡가 조두남에게서 화성악을 배웠으며 정동방송국(HLKA) 경음악단 전속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다.

여동생 나애심(본명 전봉선)의 데뷔곡 ‘밤의 땀’을 시작으로 ‘언제까지나’, ‘미사의 종’,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카시아 꽃잎 필 때’ 등 유행곡을 작곡했다.

또 명곡의 ‘아리조나 카우보이’와 ‘방랑시인 김삿갓’, 박경원의 ‘이별의 인친함’, 현인의 ‘인도의 향불’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전 씨의 가족은 ‘스타 패밀리’로도 유명하다. 여동생 나애심과 전봉옥이 가수로 활동했으며, 나애심의 딸 김혜림 역시 ‘디디디’를 부른 가수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옥희’로 기억되는 아역배우 출신 전영선이 전 씨의 둘째 딸이다.

전 씨는 1978년 허성희의 ‘전우가 남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정리하고 1979년 미국에 이민을 갔다. /연합뉴스

이세돌 9단 상반기 6억7000만원 벌어들임

이세돌 9단이 한국 프로기사 중 2016년 상반기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였다.

5월 한국기원에 따르면 이세돌 9단은 올해 1~6월 총 6억7762만원을 벌었다. 한국기원 소속 기사의 상반기 수입 중 역대 최대 금액 신기록이다.

이세돌 9단은 1월 몽백합배 준우승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았고, 명인전과 맥심피해 우승으로 5000만원씩씩 해 1억원을 획득했다.

지난 3월 인공지능 ‘알파고’와 겨룬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대국료와 승리 수당으로 2억6000만원도 받았다. 상금 2위는 3억8719만원 벌었던 강동원 9단, 3위는 2억2177만원을 수확한 박정환 9단이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전우회 출범 ... 초대회장 월터 샤프

주한미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군 전우회가 출범한다. 초대 회장에는 월터 샤프(사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내정됐다.

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은 약 350만 명으로, 주한미군 전우회(KDVA)가 결성되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강력한 친한(親韓) 조직으로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한·미 외교 및 국방 당국의 지원아래 주한미군 전우회가 연내 창설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한국전참전용사협회(KWVA)를 비롯해 미2사단 전우회, 미19지원사령부 전우회 등 주한미군 부대급 전우회는 있지만 주한미군 전체를 아우르는 전우회는 없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김쌍기·범서연씨 차남 대운(나인어클락 스튜디오 대표)군 김용희·명미향씨 장녀 유진(나인어클락 스튜디오 원장)양 = 9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S타워웨딩컨벤션 3층 메리홀드룸, 062-372-1000.

향우회

▲재광 나주향우회 회장 이·취임식 = 7일(목)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P&J 웨딩홀 4층, 이임희장 유덕찬, 취임회장 김보근.

중친회

▲광산씨 필문회(회장 이태고) 월례회 = 11일(월) 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월산동 우미추어탕 문의 010-5386-5755. ▲전주씨시 대동중약원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이달우) 이화회(회장 이승암) 월례회 = 12일(화) 오전 11시 화순 동면 천궁

폭포 062-225-5636.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 =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임양 가정 =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 =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 = 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대한장애인인권센터 상담 =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

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 = 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 미혼부모 상담, 임양상담 24시간, 미혼양육모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062-222-9349.

▲‘금융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 = 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 = 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

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 = 품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존 연구회 = 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이발기술 무료 전수 = 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 = 지체, 뇌병변장애인대상 가정 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 제한없음 가능왕상지원팀 062-943-0420.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 = 미술

<p>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p>			
<p>201호 故선정님 남(여/80세)</p> <p>子/子婦 : 김경호/이현옥, 용호/최정희, 경음/홍인순, 경규/조명옥 女/婿 : 김복순/김종택, 희숙/신요이, 의경/이종규 *발 인: 7월 6일 *장 지: 화순도암선영 *연락처: 227-4381</p>	<p>301호 故이옥심 남(여/73세)</p> <p>子/子婦 : 문한호/정미아, 선우, 선철/박미경 女/婿 : 김희경/김종기 *부인: 문덕보 *발 인: 7월 6일 *장 지: 영락중원 *연락처: 227-4382</p>		
<p>101호 故정경태 남(남/70세)</p> <p>子/子婦 : 정연중, 연진/한정임, 선웅/최진숙 未亡人: 김덕연 *발 인: 7월 6일 *장 지: 담양대덕선영 *연락처: 227-4000</p>	<p>102호 故임정희 남(여/58세)</p> <p>女 : 홍인주, 홍인영 夫君 : 홍대준 *발 인: 7월 6일 *장 지: 영락중원 *연락처: 227-4385</p>		
<p>孝 마음까지 원한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p>			

부음

▲이종록씨 별세 송우(군장대 총장)씨 부친상 = 발인 6일(수) 전북 군산 은과장례 문화원 1층 VIP실 063-472-4101.

▲홍보아씨 별세 김현민씨 부친상 = 발인 6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신우달씨 별세 문중규(광주일보 오치지국장)씨 빙모상 = 발인 7일(목) 여수성심병원장례식장 1층 3호실 061-650-8444.